

청약홈 개편·총선이슈... 이달 수도권 분양 1.6만 가구 '후끈'

서울 1178가구, 경기7041가구 등 총 17개 단지서 1만1679가구 분양 곧 봄 이사철... 신축 수요 쏠릴 듯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시스

2월 중 수도권에서 1만여 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홈 개편이 오는 3월 예정된 가운데 4월 총선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2월 중 분양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는 17개 단지, 총 1만1679가구(임대 제외)가 나올 예정이다. 이는 전년 동월(4585가구)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178가구(3곳) ▲경기 7041가구(8곳) ▲인천 3460가구(6곳) 등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올해 분양 물량이 2~3월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

만 오는 3월 한국부동산원이 청약홈 개편에 나서면서 사실상 분양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자 2월에 분양 물량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홈 개편 작업은 3월 4일부터 22

일까지 약 1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청약제도 규칙은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간에 아파트 분양은 모두 중단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에 따라 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를 잠시 멈춘다고 설명했다.

4월에 치러질 총선도 2월에 분양 물량을 풀리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통상 분양 현장에서는 총선 시점을 피해 분양 일정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선거에 쏠리다 보니 홍보가 어렵고, 선거 이후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 대기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수도권의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넷째 주(22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올랐다. 오름폭이 전주(0.07%)와 같은 상승세를 보이며 3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경기(0.04%→0.05%)와 인

천(0.01%→0.03%)은 전주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은빛1단지'는 이달 전용면적 59㎡가 2억 8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해 12월(2억6000만원) 대비 2000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인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하늘도시 우미린 2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이 2억에서 2억 4000만원으로 1개월 만에 4000만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가 끝나고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지만, 올해는 3~4월에 이슈가 많은 만큼 건설사가 최대한 많은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이다"라면서 "수도권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인기 지역 내 알짜 단지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중대재해법 2년 유예법안 반드시 처리를” 中소음부즈만, 작년 규제어로 3633건 발굴

중소 17개 협회 등 3500명 강력추구 “83만 소상공인 예비 범법자 전략 폐업 위기에 일자리도 잃게 될 것”

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선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며 “국회는 중소기업이 폐업 공포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을 되찾고 근로자들도 실직 걱정을 덜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 달라며 10회 이상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바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 대표단은 최근까지 수 차례 국회를 방문, 준비기간을 더 달라고 호소했다. 또 2년 유예가 결정되면 추가 유예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1일 연다. 2월 임시국회는 2월 19일 예정돼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기업현안 간담회 등 통화 1239건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3633건에 달하는 기업현안의 규제애로를 발굴·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39건이 수용 또는 일부 수용 등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력 입국에 정일 확인 불편 해소’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3년도 활동결과’를 지난 23일 국무회의의 보고를 거쳐 31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에만 ‘지역별 특화산업 간담회’(중소기업 S.O.S Talk)를 비롯해 협·단체와 함께하는 기업현안 간담회 등 총 67회의 현장 소통 자리를 가졌다. 그동안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알 수 없어 생산계획에 차질을 빚고 새 인력을 맞이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고용부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법무부의 비자 발급정보를 연계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 외국인력

에 대한 입국예정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옴부즈만은 또 현장 기반의 상시적인 기업 규제애로 발굴·처리 이외에 특정 테마를 선정해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일괄 개선하는 성과도 냈다.

먼저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 마련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청소년의 악의적 시설이용 시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등 현장에서 공감가능하도록 일괄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 117건을 일괄 개선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한 해 동안 ‘규제해결사’답게 옴부즈만은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만나고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올해에는 업종·업체별 현장미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과제별 특성에 따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정부 규제개선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추동력을 강화하고 규제 개선 효과를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푸조, 챗GPT 도입 등 전동화전략 공유

‘E-라이언 데이 2024’ 개최

푸조가 전동화 전략을 강화하며 미래 리더십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챗GPT 까지 도입한다.

푸조는 30일 온라인에서 ‘E-라이언 데이 2024’를 개최하고 ‘E-라이언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했다.

E 라이언 데이는 푸조가 연간 전동화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로, 지난해 ‘E-라이언 프로젝트’를 처음 공개한 바 있다. ▲스텔란티스 STLA 플랫폼 기반 제품 및 서비스 생태계(Ecosystem) ▲차량 운행 전 과정을 케어하는 고객 경험(Experience) ▲2024년 말까지 100% 전동화(Electric) 라인업 출시 계획 ▲최소한의 전력으로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효율(Efficiency) ▲환경(Enviro

nement)을 위해 2038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의 ‘5E’를 포함한다.

푸조는 올해에도 탄소 중립 모빌리티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유럽 전기차 시장 선도 브랜드로 도약한다는 전략,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E-408’과 ‘E-5008 SUV’를 라인업에 추가한다. 승용차 9종과 경상용차 3종 등 전기차 라인업을 12종으로 확대하며 유럽 대중 브랜드 중 가장 많은 모델을 확보했다. 이미 경상용차 판매로는 1위, 유럽 B세그먼트 시장도 선도했다.

푸조는 주행거리 연장 의지도 이어갔다. 최대 700km를 달리는 뉴 푸조 E



푸조 E-3008.

3008 SUV에 이어 뉴 푸조 E-208도 WLTP 기준 566km를 제공한다.

챗GPT 기술도 채택한다. 아이콧핏에 내장하고 ‘OK 푸조 음성 어시스턴트’와 연결해 운전자 요청에 대응한다. 5개 시장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구매 편의도 강화한다. ‘푸조 얼루어 케어’ 프로그램으로 8년 또는 16만km 품질보증, 주행 거리에 따라 할부금을 책정하는 ‘푸조 커스터마이즈드 리스’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중기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80곳 선정

기반조성 21곳, 집중육성 40곳 등

대전 각 2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80개 시장을 새로 선정, 시장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특성화 시장은 첫걸음 기반조성 21개,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을 연계해 집중 육성하는 문화관광형 40개,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19개 시장으로 각각 구분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17개, 경기 16개, 경북 7개, 울산·전남 6개, 충북 5개, 부산·충남·경남 4개, 인천 3개, 대구·광주·

중기부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 2곳, 디지털시장 1곳을 릴레이로 방문해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특성화시장의 시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규 고객 유입 확대, 매출 증가 등을 유도해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전통시장·소상공인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민생 속으로 씩씩이 달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